

‘예술공연의 성지’ 자리매김... 다채로운 무대 올린다

개관 34주년 맞은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상반기 계획 발표
교향악단·발레단·창극단 등 준비
찾아가는 공연·문화예술교실 추진

‘예술공연의 성지’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개관 34주년을 맞은 광주예술의전당은 14일 2025년 광주시립예술단 신년 프로그램 및 상반기 공연 계획을 밝히며 주요 공연사업을 소개했다.

교향악단, 발레단, 합창단,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오페라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술감상교육사업’, ‘문화예술교실’ 등 주요 공연사업을 신설 및 강화한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올해 상반기 12회 이상의 공연을 계획해(정기연주회 6회, 오티움콘서트 2회, 체임버 시리즈 3회, 어린이날 특별공연 1회)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향의 새해 첫 공연은 2025 신년음악

회 ‘New Wave’로 15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이어 GSO 기획공연 ‘체임버 시리즈’를 다음달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3월 이후 일정은 광주시향 예술감독 취임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올해 첫 공연은 발레살롱 콘서트 I ‘Voice of Spring’이다.

남만발레에서 고전발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라 작품들로 구성된 공연은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립발레단은 이어 5월 첫 정기 공연으로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창작발레 ‘Divine’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23년 주재만의 안무로 첫선을 보인 이 공연은 ‘신성한, 숭고한, 천상의’란 뜻으로 번역되는 제목을 차용한 작품으로서 5·18 영령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광주시민 모두를 아우를 예정이다.

광주시립발레단 제138회 정기공연 ‘코펠리아’는 오는 10월 대한민국 발레축제에 초청받아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2025년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일환인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광주시내 야외무대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올해 상반기 정기연주회 1회, 기획연주회 5회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

다.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과 5월에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들이 기다린다.

이어 6월 광주시립합창단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로비음악회 ‘Matinee Concert’ (어울림)이 공연된다.

특히 재생과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각양각색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립창극단의 기획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4월 무대에 올라 공연의 막을 올리고 5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 ‘천변만화’가 5월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도 올해 상반기 다채로운 국악 창작관현악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전남 출신 국악인들이 한데 모이는 제141회 정기연주회 ‘꿈, RETURNS’가 오는 4월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지역 국악 예술 후학 양성과 국악 인재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의 장이 되고자 꾸준히 펼쳐 온 ‘청소년 협연의 밤’ 연주회를 한층 강화해 선보인다. 6월에 개최되는 ‘청소년 협연의 밤’ 연주회는 최초로 ‘여성 지휘자’들이 각 국악전공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학생 협연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제144회 정기공

연 비발디 ‘Gloria’ (글로리아)를 오는 3월2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공연한다. 이어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야외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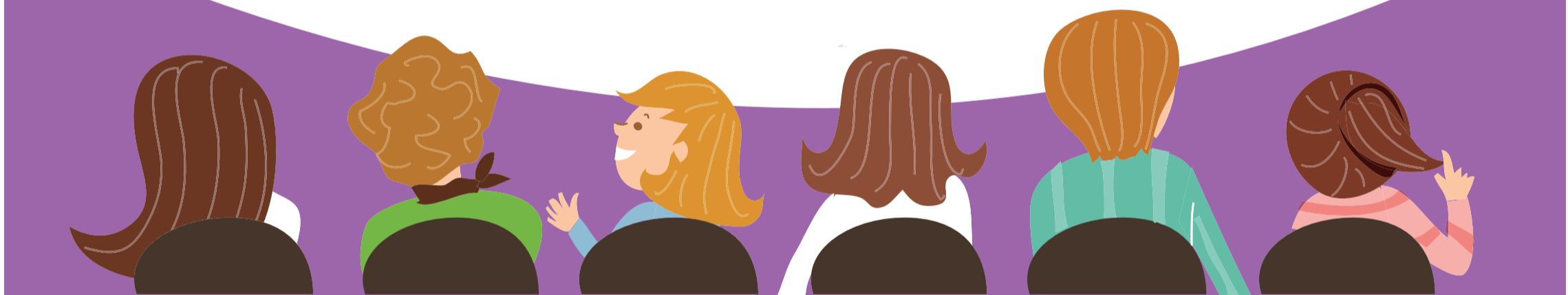
광주시립극단은 4월24일~26일 제24회 정기공연으로 고전명작 시리즈 ‘위선자 타르튀프’를 선보이며 지난해 친화 공연 사업으로 기획한 출장연극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6월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공연한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각각 한 차례 선보일 방침이다. 먼저 4월4일~5일 광주를 대표하는 50여명의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 ‘50 Stars’를 선보인다.

이어 5월30일~31일 18회 정기공연 ‘사랑의 묘약’으로 다시 찾아온다. 이탈리아 3대 희극 오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원작을 충실히 압축해 90분의 공연시간 동안 주요 하이라이트를 펼쳐낸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민이 보내준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개관 34주년을 맞은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ACC 예술극장과 함께 성장할 예술인 모이세요”

전남문화재단, ‘2025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ACC 시즌 예술인’ 모집
내달 3일까지 누리집서
창작·연구·역량강화 제공
광주·전남 거주자 가산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누리집을 통해 ‘ACC 시즌 예술인’을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ACC 시즌 예술인’은 ACC가 연간 예술극장과 함께할 예술인을 선정해 공연 출연뿐만 아니라 창작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CC는 시즌 예술인 제도를 통해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과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ACC 시즌 예술인은 총 15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되며 1·2차로 나눠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는 △어린이 공연 △레퍼토리 공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등 3개 분야 7명을 선정하고 추후 2차 모집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의 전문 공연예술인으로 국적 및 거주지, 전공 및 경력에

관한 제한은 없다. 광주·전남 거주자에게는 지역 공연예술 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목적을 위해 가산점이 부여된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2차 실연 심사로 진행하며 실연 심사는 분야별·작품별로 요구되는 기량을 개별의 방법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ACC 공연출연과 연구개발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공연출연은 오디션에 지원한 지정 작품 외에도 기량과 배역이 일치할 경우 ACC의 기타 창·제작 작품에도 출연할 수 있다. 또 ACC의 멘토링 프로그램, 기타 국내 주요 공연 및 워크숍 등 창작자로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본인의 창작 작품을 ACC 무대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얻는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시즌 예술인 제도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출연과 역량 강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ACC가 새롭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향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 지역 공연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내달 5일~14일 온라인 접수
나주·순천서 사업 설명회 개최

전남문화재단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균등하고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식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유희 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모두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남 도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시설이 대상이다.

공모 접수는 다음달 5~14일 10일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나주 국립문화유산연구소 대강당과 23일 순천 전남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사업별 자세한 공고 내용과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된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해 기획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및 전문가 자



전남문화재단이 지난 13일부터 ‘2025 전남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식 공모를 시작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설계했다.

신진 예술인에게 통합적 교육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특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유희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신설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생애맞춤 문화예술교육을 통합했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

화’ 사업은 도내 문화기반시설을 선정해 문화예술교육사가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